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결정요인*

이 관 룰 · 도 묘 연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NGO를 사례로 하여 NGO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의 중심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3개 신문검색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NGO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의 중심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연평균 1.34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활동은 주로 서비스적 활동, 협력적 활동, 1회에 6개 이상의 단체와 협력, 시군 중심의 활동, 대상 측면에서 대중지향적 활동, 방식 측면에서 비제도적 활동이다. 둘째, 연결중심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외향적 연결 중심성에는 협력활동의 비중(+), 활동횟수(+), 협력기관수(+), 비NGO 협력단체 비중(-)이 영향을 미친다. 반면 내향적 연결중심성에는 활동횟수(+)와 비NGO 협력단체 비중(-)이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접 중심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외향적 인접중심성에는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 협력활동의 비중(+), 비NGO 협력단체 비중(+), 협력기관수(-)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내향적 인접중심성에는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 시군단위 활동비중(+), 서비스적 활동비중(-)이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사이중심성에는 활동횟수(+)와 협력기관수(+)만이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NGO,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사이중심성

* 이 논문은 충남연구원 2016년 기본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것임.

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NGO는 소규모이고, 필요한 자원과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Pfeffer & Salancik, 1978). 그렇기 때문에 NGO는 다른 유형의 단체에 비해 제3자와 협력적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 그 이유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타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당 조직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관률·도묘연, 2015). 일반적으로 NGO를 비롯한 특정 기관이 다른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더 많은 활동을 수행(연계중심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내에서 조직의 신뢰(인접중심성)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에 대한 중재력(사이중심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즉 NGO의 활동과 신뢰, 중재력 등과 같은 영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발전은 확대되어 갈 것이고, 이에 따라 NGO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아울러 NGO와 제1섹터 및 제2섹터, 그리고 제3섹터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될 것이다(도묘연, 2016). 그러나 무조건 다른 단체와 협력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NGO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당 NGO의 활동과 신뢰, 그리고 중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컨대 특정 NGO가 협력적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면, 다른 단체들은 그 특정 단체와 협력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특정 NGO 단체는 협력적 활동을 통해 무임승차를 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정 NGO 단체가 다른 단체와 협력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다른 단체들은 특정 단체가 폐쇄적이라고 간주하고 협력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NGO가 어떤 활동을 해야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증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 볼 수 있다. 최근 NGO는 사회문제 등에 대한 주창적 활동보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연 NGO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주창적 활동을 하지 않고, 서비스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 네트워크 내에서 NGO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NGO가 어떠한 활동을 수행해야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NGO의 활동과 신뢰, 그리고 중재력과 같은 영향력을 증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인식은 NGO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규범적 측면과 NGO가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NGO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네트워크에서 NGO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가 갖는 연구적 의의인 동시에 문제인식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NGO를 사례로 하여 NGO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의

중심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3개 지역 신문검색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NGO의 활동특성과 중심성을 산정한 이후 NGO의 활동특성이 네트워크의 중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한편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그리고 사이중심성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II. 이론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네트워크 중심성의 논의

네트워크 이론의 핵심적 개념 중의 하나는 바로 중심성이다. 일반적으로 중심성이란 다른 많은 기관과 직접 연결된 기관의 중심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주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에서 중심성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그리고 사이중심성(betweenness)으로 구분이 된다(Scott, J., 2000).

우선 연결중심성은 특정 NGO가 다른 단체와 얼마나 많은 협력을 하였는가를 최대 협력 가능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수식 1). 따라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크면 클수록 특정 주체의 연결중심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갖게 된다(김용학, 2007). 이러한 연결중심성은 해당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외향적 연결중심성과 반대로 협력을 요청받는 내향적 연결중심성으로 다시 구분이 된다. 흔히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다른 주체들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인접중심성은 특정 NGO가 네트워크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접중심성은 두 주체들 간의 최단 연결거리를 의미한다(수식 2). 따라서 인접중심성이 높을수록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접중심성도 협력을 요청하는 외향적 인접중심성과 협력을 요청받는 내향적 인접중심성으로 구분이 된다. 일반적으로 인접중심성이 높을수록 해당 네트워크에서 평판과 신뢰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곽기영, 2014).

셋째, 사이중심성은 특정 NGO가 다른 주체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수식 3). 즉 어떤 NGO가 최단 경로상에 위치할수록 사이중심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이중심성은 연결중심성과 인접중심성과 달리 방향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이중심성이 높을수록 해당 네트워크에 대한 중개 및 통제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Scott, J., 2000).

$$Cd_i = \frac{\sum_{j=1}^g x_{ij}}{g-1} \quad (\text{수식 1}), \quad Cc_i = \frac{1}{\sum_{j=1}^g d(i,j)} \quad (\text{수식 2}), \quad Cb_i = \sum_{j < k} \frac{g_{jk}(i)}{g_{jk}} \quad (\text{수식 3})$$

4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결정요인

여기서 Cd_i 는 단체 i 의 연결중심성, Cc_i 는 인접중심성, Cb_i 는 사이중심성

$\sum_{j=1}^g x_{ij}$ 는 단체 i 가 다른 단체와 협력한 수

$\sum_{j=1}^g d(i,j)$ 는 단체 i 와 단체 j 간의 최단경로거리의 합

g_{ik} 는 단체 j 와 k 간의 최단경로의 개수

$G_{ik}(i)$ 는 단체 j 와 k 간의 최단경로 중 i 단체를 포함한 경로의 개수
 g 는 단체의 개수, 단 $i \neq j$

이상에서 살펴본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그리고 사이중심성은 모두 같은 중심성으로 해당 주체가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들 3개 중심성의 차이를 구분해 본다면, 연결중심성은 높은 활동성을, 인접중심성은 좋은 신뢰성을, 그리고 사이중심성은 높은 중재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개의 중심성은 상호연결 되어 있기도 하지만, 상호독립적인 경향을 띤다. 즉 연결중심성이 높다고 해서 인접중심성과 사이중심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결중심성과 인접중심성, 그리고 사이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 구조(선형, 원형, 별형 등)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울러 해당 NGO가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NGO 단체의 경우, 연결중심성은 높은 반면, 인접중심성과 사이중심성은 낮을 수도 있다. 즉 어떤 NGO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해서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다른 단체가 해당 NGO 단체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중심성과 인접중심성의 경우 방향에 따라 외향적 중심성과 내향적 중심으로 구분이 되는데, NGO의 활동특성은 외향적 중심성과 내향적 중심성에 각각 상이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외향적 중심성이 높은 NGO의 경우 다른 단체가 협력의 대상으로서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990년대 이후 외국의 NGO에 관한 논의는 거버넌스적 관점과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Ohanyan, A., 2012). 우선 거버넌스적 관점에서는 NGO와 정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주로 논의하였고, 네트워크적 관점에서는 NGO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연구경향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NGO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NGO의 국내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 중에서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는 김영중·이재호(2002), 정정화(2003), 최병대·김상구(2004), 배응환(2004), 장인봉·고종욱(2004), 유재원·홍성만(2005), 박재창(2007), 정순관 외(2008), 김성수(2010), 김승완(2011), 이창길·김정숙(2014), 공석기(2015)

등이 있다. 그리고 NGO와 관련된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도입하여 NGO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창현(2002), 박치성(2006), 한진이(2011), 도묘연·이관률(2012), 이관률·도묘연(2012), 김승완(2012), 이창기(2015), 이관률·도묘연(2015), 도묘연(2016)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NGO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네트워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네트워크를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행위자들의 동태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한 이후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예: 정부, 기업, 공공기관, 다른 NGO 등) 간의 협력과 갈등의 관점에서 NGO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이관률·도묘연, 2015).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자치, 환경, 보건 등 특정 정책영역에서 협력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 다른 기관들의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만을 다루고 있다(Berman 1997). 즉 NGO와 다른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공동이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이것은 NGO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수평적인 협치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 문화예술, 자치 등 특정한 정책영역 혹은 특정한 NGO를 사례로 하여 NGO와 정부, 기업, 공공기관, 다른 사회단체들의 협력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구축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NGO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NGO의 중심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네트워크 전략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는 NGO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혹은 NGO의 네트워크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NGO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NGO의 활동특성에 관한 변수와 개별 NGO의 네트워크 중심성에 관한 변수를 통합하여 NGO의 활동특성이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점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가장 큰 차별성인 동시에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III. 분석틀 및 자료수집

1.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이 네트워크 중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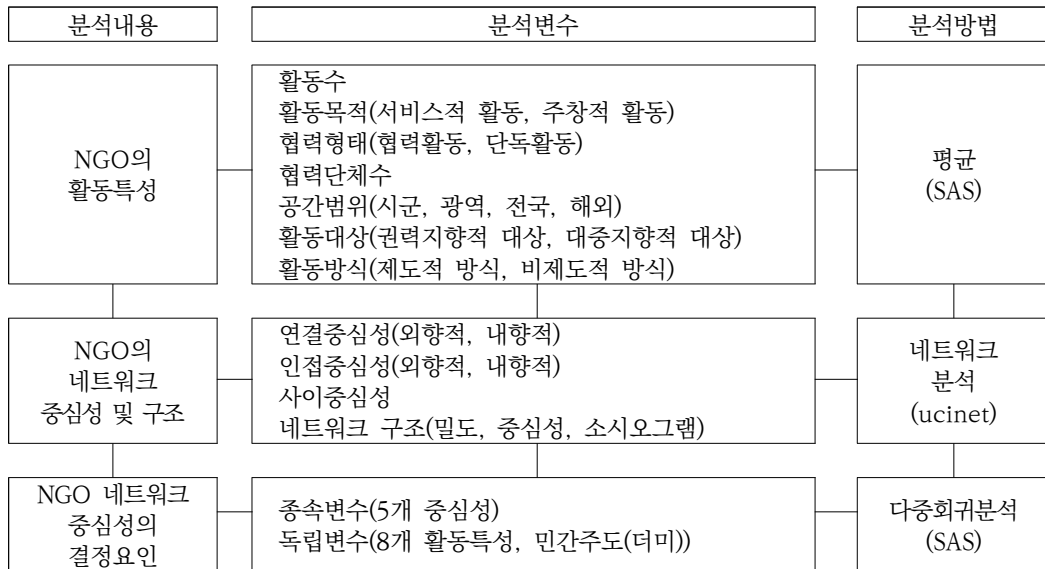
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GO의 활동특성과 NGO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우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NGO의 활동특성이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NGO의 활동특성을 다룬 연구로는 이관률·도묘연(2012)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수, 협력단체의 유형, 협력단체수, 공간범위, 협력목적, 활동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활동수는 협력활동의 건수를, 협력단체의 유형은 NGO와 비NGO로, 협력단체수는 협력한 단체수를, 공간범위는 시군, 시도, 전국, 해외로, 협력목적은 서비스 활동과 주창적 활동으로, 활동방식은 제도적 방식과 비제도적 방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분류방식으로 토대로 하여 NGO의 활동특성을 활동수, 활동목적, 협력형태, 협력단체수, 공간범위, 활동대상, 그리고 활동방식 측면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활동수는 NGO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활동목적은 해당 활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창적 활동인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협력형태는 타 단체와 협력해서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독립적 활동을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협력단체수는 1회의 활동에 얼마나 많은 단체와 협력을 하는지를 의미한다. 공간범위는 NGO가 활동하는 공간적 차원으로서 시군, 해당 광역시도, 전국 차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한편 활동대상은 NGO의 활동이 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의회,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력지향적 대상의 활동과 대중,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다른 사회단체 및 기관, 조직자체 및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끝으로 활동방식은 간담회 및 공청회, 사법소송, 청원서 등과 같은 제도적 방식의 활동과 기자회견 및 보도의뢰, 대중집회, 성명서 및 결의문, 선전 및 캠페인, 단체유지활동, 강연회 등과 같은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NGO의 활동특성 분석은 평균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NGO의 네트워크 중심성은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그리고 사이중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여기서 연결중심성과 인접중심성은 방향에 따라 다시 외향적 중심성과 내향적 중심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개별 NGO 단체의 외향적 연결중심성, 내향적 연결중심성, 외향적 인접중심성, 내향적 인접중심성, 사이중심성을 산정하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NGO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와 밀도,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성을 산정하도록 한다. 네트워크의 중심성 및 구조와 밀도 등은 사회네트워크 프로그램인 Ucinet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산정식은 제2장에서 논의한 수식 1, 수식 2, 수식3과 같다.

끝으로 NGO 활동특성이 네트워크에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NGO 네트워크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NGO 활동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때 NGO의 활동특성 중 활동횟수와 협력단체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별 변수의 비중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도록 한다. 예컨대 활동목적의 경우 서비스적 활동의 비중을, 협력형태는 협력활동의 비중, 협력단체수는 비NGO 협력단체비중, 공간범위는 시군단위 활동비중, 활동대상은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 활동방식은 비제도적 대상의 활동비중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다. 아울러 NGO의 설립목적(민간주도)을 터미변수로 사용하여 단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모두 5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중심성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별도로 수행하도록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SAS를 이용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1) 분석틀과 분석변수

2. 자료수집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의 활동특성과 중심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NGO의 활동현황을 지역일간지 신문기사에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관은 충청남도 비영리 민간단체 대장(2015)에 등록된 378개의 단체로 하였다. 즉 충남지역의 대표적 지역일간지인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신문기사에서 378개의 단체명으로 검색하여 기사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신문기사의 검색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한편 NGO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신문기사에서 NGO가 다른 단체와 “함께, ” 공동 “, ” 연대 “ 등을 한 경우 실제 해당 단체명을 기입해 개별 NGO의 중심성을 산정하였다.

〈표 1〉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구분		주요내용
조사개요	조사대상	충청남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대장 상 378개 단체
	조사기간	2013. 1. 1 ~ 2015. 12. 31
	조사방식	지역일간지에서 NGO 단체명으로 기사 검색
조사결과	검색기사	총 486건의 신문기사(협력의 경우는 315건)
	검색단체	121개 단체

신문검색의 결과 충남 비영리 민간단체 대장의 378개 단체 중에서 121개의 단체가 검색되었고,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고 총 486건의 신문기사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신문기사는 NGO의 활동횟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중에서 다른 단체와 협력한 활동은 315회(64.8%)로 나타났다. 신문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충남지역 NGO 중 약 32.0%만이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해 언론 상에 노출이 되었다. 즉 1개 단체가 3년 간 평균 4.02회의 활동을 한 것이다. 한편 2010년에서 2015년간 충남지역 NGO 활동과 비교해 보면, 223개의 단체가(등록단체 355개) 3년간 평균 5.41회(총 1,207회)의 활동을 하였고, 이중 협력활동의 비중은 55.3%였다(도묘연, 2016). 따라서 최근 들어 충남지역 NGO의 활동단체의 규모와 횟수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협력활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문기사에 노출된 121개의 단체를 설립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정부주도형 NGO가 31개(25.6%)이고, 시민사회주도형 NGO가 90개(78.4%)이다. 그리고 121개 단체 중 1회 이상 협력활동을 한 단체는 109개(84.3%)이고, 전혀 협력을 하지 않는 단체는 19개(15.7%)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지역 NGO는 대부분 시민사회주도형 NGO이고, 이들 NGO는 대부분 다른 단체와 협력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 NGO의 일반특성

(단위: 개소, %)

구분		단체수	구성비
전체		121	100.0
설립목적	정부주도	31	25.6
	민간주도	90	78.4
협력형태	협력	102	84.3
	단독	19	15.7

IV. 실증분석

1.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

충남지역 121개 NGO 단체의 활동특성을 활동수, 활동목적, 협력형태, 협력단체수, 공간범위, 활동대상, 그리고 활동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 3년간 충남지역 NGO 단체의 평균 활동건수는 4.02건이다. 조사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1년에 1.34회의 활동을 한 것이다.

둘째, 활동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서비스적 활동은 3.29회이고, 주창적 활동은 0.73회이다. 따라서 전체 활동 중 81.8%는 서비스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주창적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협력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협력적 활동은 2.60회이고, 단독 활동이 1.41회이다. 따라서 전체 활동 중 64.8%는 협력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독활동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협력단체수 측면에서 보면, 1번의 활동에 평균 6.29개의 단체가 협력단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NGO 단체는 2.81개이고, 비NGO 단체는 3.48개이다. 따라서 NGO는 협력활동을 하는 경우 1~2개의 소수 단체와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이상의 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고, 비NGO단체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공간범위별로 구분해 보면, 시군차원의 활동이 3.41회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차원은 0.52회, 전국차원은 0.04회, 해외차원은 0.05회이다. 따라서 충남지역 NGO 활동의 85.0%는 시군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충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12.7%이다.

여섯째, 활동대상별로 구분해 보면, 권력지향적 활동은 0.33회에 불과한 반면, 대중지향적 활동은 3.69회이다. 특히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2.56회로 가장 많다. 따라서 충남지역 NGO 활동 중 91.8%가 활동대상적 측면에서 대중지향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활동방식별로 구분해 보면, 제도적 활동은 0.07회에 불과한 반면, 비제도적 활동은 3.94회이다. 특히 선전 및 캠페인이 2.55회로 가장 많다. 따라서 충남지역 NGO 활동 중 98.3%가 비제도적 활동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는 반대로 현행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NGO는 연 평균 1.34회의 매우 제한적 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 활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균 6개 이상의 단체와 협력적 활동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의 공간범위는 주로 시군이고, 대중지향적 활동을 비제도적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3〉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

(단위: 회)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활동수		4.02	5.28
활동목적	서비스 활동수	3.29	4.52
	주창적 활동수	0.73	2.10
협력형태	협력한 활동수	2.60	3.21
	단독 활동수	1.41	3.04
협력단체수	총 단체수	6.29	8.35
	NGO 협력단체수	2.81	5.15
	비NGO 협력단체수	3.48	4.77
공간범위	시군차원 활동수	3.41	4.95
	대전충남차원 활동수	0.51	1.16
	전국차원 활동수	0.04	0.37
	해외차원 활동수	0.05	0.38
활동대상	권력지향적 대상의 활동수	0.33	1.04
	정부	0.20	0.69
	의회	0.10	0.37
	정당	0.03	0.26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수	3.69	4.86
	대중	2.56	3.66
	공공기관	0.07	0.26
	교육기관	0.17	0.55
	기업	0.06	0.32
	다른 사회단체 및 기관	0.50	1.07
	조직자체 및 회원	0.31	0.71
	기타	0.02	0.20
활동방식	제도적 방식의 활동수	0.07	0.29
	간담회 및 공청회	0.02	0.13
	사법소송	0.01	0.09
	청원서	0.05	0.25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수	3.94	5.23
	기자회견 및 보도의뢰	0.33	1.24
	대중집회	0.08	0.33
	성명서 및 결의문	0.14	0.64
	선전 및 캠페인	2.55	3.94
	단체유지활동	0.18	0.52
	강연회·토론회·특강	0.66	1.18

2. 충남지역 NGO의 네트워크 중심성 및 구조

충남지역 121개 NGO 단체의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그리고 사이중심성의 평균값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향적 연결중심성의 평균값은 5.515%이고, 내향적 연결중심성의 평균값은 0.067%이다. 따라서 연결중심성에서는 외향적 중심성이 내향적 중심성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외향적 인접중심성의 평균값은 0.163%이고, 내향적 인접중심성은 0.170%로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사이중심성의 평균값은 0.0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심성 중에서는 외향적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내향적 인접중심성과 외향적 인접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향적 연결중심성과 사이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충남지역 NGO의 네트워크 중심성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결중심성	외향적	5.515	10.181	0.000	50.917
	내향적	0.067	0.143	0.000	0.986
인접중심성	외향적	0.163	0.075	0.000	0.198
	내향적	0.170	0.074	0.000	0.247
사이중심성		0.003	0.014	0.000	0.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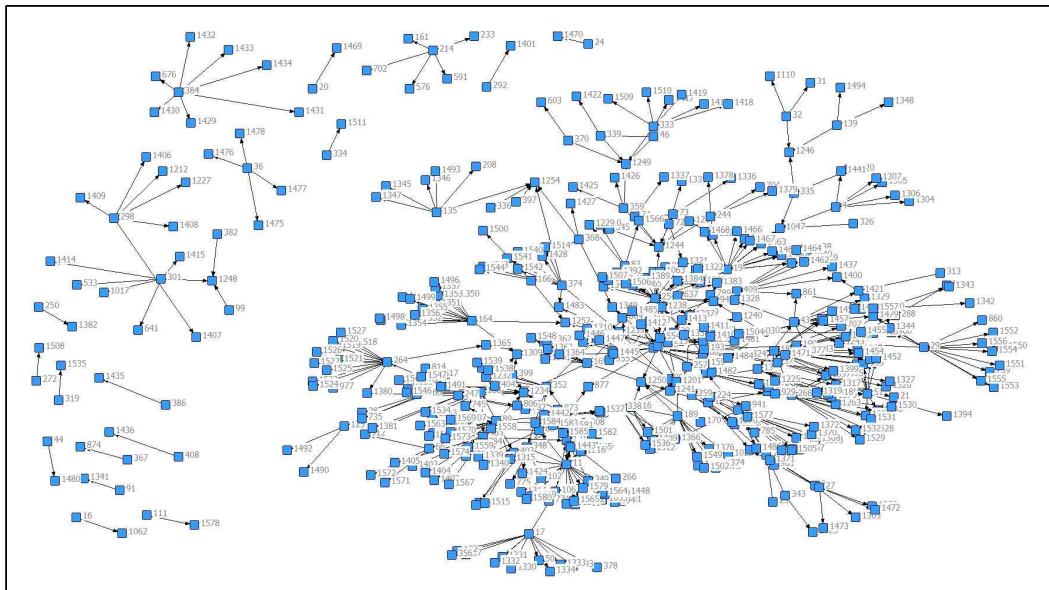
한편 충남 NGO 네트워크에는 총 508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 비영리 민간단체 대장의 NGO 단체는 121개 이고, 이들 단체가 협력을 한 다른 단체가 387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남 NGO 네트워크의 연결망수는 605개이고, 밀도는 0.002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의 외향적 연결중심성 5.693%, 내향적 연결중심성은 2.927%, 사이중심성은 0.130%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의 중심성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네트워크 전체의 인접중심성은 산정되지 않아 설명하지 않도록 한다.

〈표 5〉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의 일반특성

구분		주요내용
행위자수		508개(NGO 121개, 기타 387개)
연결망수		605개 연결망
밀도		0.0023%
연결중심성	외향적	5.693%
	내향적	2.927%
사이중심성		0.130%

그리고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거대한 한 개의 네트워크와 19개의 소규모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1개의 네트워크에는 총 445개의 단

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체 508개 단체의 87.6%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규모 네트워크로는 9개 단체, 8개 단체, 7개 단체, 6개 단체,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각각 1개씩 존재하고 있고, 2개 단체의 협력네트워크는 총 14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는 약한 관계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는 과거에 형성되어 있던 핵심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2009년~2010년 사이에는 약 5개의 핵심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관률·도모연, 2012), 최근에는 핵심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지역 NGO가 상대적으로 협력활동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단체와 1회성의 협력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2) 충남지역 NGO의 네트워크 구조

3.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 중심성의 결정요인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이 네트워크 중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의 3가지 중심성, 즉 연결중심성(외향/내향), 인접중심성(외향/내향), 사이중심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NGO의 9개 활동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NGO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다중회귀분석에 의해서 도출된 5개 회귀모형의 개별 추정값을 살펴보기 이전에 모형 전체

의 유의성과 설명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향적 연결중심성의 F값은 22.53(prob=0.0011)이고 R^2 는 0.6856이고, 내향적 연결중심성의 F값은 9.46(prob=0.0011)이고 R^2 는 0.4780이다. 그리고 외향적 인접중심성의 F값은 230.80(prob=0.0011)이고 R^2 는 0.9571이고, 내향적 인접중심성의 F값은 213.32(prob=0.0011)이고 R^2 는 0.9538이다. 한편 사이중심성의 F값은 10.50(prob=0.0011)이고 R^2 는 0.5040이다. 따라서 추정된 5개의 다중회귀모형은 모두 유의성이 양호하고, 모형의 설명력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5개의 다중회귀모형의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적 연결중심성에는 협력활동의 비중(0.63139), 활동횟수(0.50748), 협력단체수(0.36877), 그리고 비NGO 협력단체 비중(-0.3009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주도(터미), 서비스적 활동의 비중, 시군단위 활동비중,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 그리고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GO의 활동수가 많고, 협력활동의 비중이 높고, 협력단체수가 많은 경우 외향적 연결중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NGO 협력단체 비중이 높을수록 외향적 연결중심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내향적 연결중심성에는 활동횟수(0.64297)과 비NGO 협력단체 비중(-0.4885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7개의 독립변수는 내향적 연결중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횟수가 많을수록 내향적 연결중심성은 높은 반면, 비NGO 협력단체 비중이 높으면 내향적 연결중심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NGO 단체 중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주로 NGO와 협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 외향적 인접중심성에는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0.65072),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0.21464), 협력활동의 비중(0.14984), 비NGO 협력단체 비중(0.08948), 협력단체수(-0.10253)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횟수와 민간주도(터미), 서비스적 활동비중, 시군단위 활동비중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향적 인접중심성은 비제도적 활동 방식,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 협력활동의 비중, 비NGO 협력단체 비중이 높을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 반면, 협력단체수가 많을수록 외향적 인접중심성은 낮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즉 특정의 협력활동에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외향적 인접중심성이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내향적 인접중심성에는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0.58101),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0.23958), 시군단위 활동비중(0.15247), 서비스적 활동비중(-0.163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횟수, 민간주도(터미), 협력활동의 비중, 협력단체수, 비NGO 협력단체 비중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향적 인접중심성은 비제도적 활동방식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이 높을수록, 시군단위의 활동비중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서비스적 활동의 비중은 오히려 내향적 인접중심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GO 단체가 주창적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내향적 인접중심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사이중심성에는 활동횟수(0.71413)와 협력단체수(0.19119) 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7개의 독립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GO의 사이중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활동횟수가 많아야 하고, 협력단체수가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6〉 충남지역 NGO 네트워크 중심성의 결정요인

구분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사이중심성
		외향적	내향적	외향적	내향적	
활동횟수		0.50748* (4.91)	0.64297* (4.83)	-0.01545 (-0.40)	0.00655 (0.17)	0.71413* (5.50)
민간주도(더미)		0.03570 (0.28)	0.19039 (1.16)	-0.04448 (-0.94)	0.04640 (0.95)	0.14820 (0.92)
서비스적 활동의 비중		0.01530 (0.07)	-0.40891 (-1.42)	-0.02056 (-0.25)	-0.16305* (-1.91)	-0.38858 (-1.39)
협력활동의 비중		0.63139* (2.65)	0.41253 (1.34)	0.14984* (1.70)	0.06098 (0.67)	0.49001 (1.64)
협력단체수		0.36877* (4.20)	-0.05607 (-0.50)	-0.10253* (-3.16)	0.01049 (0.31)	0.19119* (1.73)
비NGO 협력단체 비중		-0.30093* (-2.17)	-0.43855* (-2.46)	0.08948* (1.75)	0.07190 (1.35)	-0.11539 (-0.66)
시군단위 활동비중		0.02338 (0.15)	0.25646 (1.24)	0.00559 (0.09)	0.15247* (2.49)	0.13610 (0.68)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		0.12193 (0.40)	-0.02324 (-0.06)	0.21464* (1.93)	0.23958* (2.07)	0.00835 (0.02)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		-0.50029 (-1.24)	0.05151 (0.10)	0.65072* (4.37)	0.58101* (3.76)	-0.57105 (-1.13)
모형 적합성	F값(prob)	22.53 (0.0001)	9.46 (0.0001)	230.80 (0.0001)	213.32 (0.0001)	10.50 (0.0001)
	R ²	0.6856	0.4780	0.9571	0.9538	0.5040

주: * prob<0.1

한편 모형의 추정결과를 독립변수별로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활동횟수는 연결중심성(외향/내향)과 사이중심성을 높이는 반면, 인접중심성은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횟수는 NGO의 활동력과 중재력을 제고시키기는 하지만, NGO의 신뢰를 향상 시키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NGO의 설립목적은 5가지 네트워크 중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민간주도의 NGO가 네트워크에서 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적 활동의 비중은 연결중심성(외향/내향)과 외향적 인접중심성, 사이중심성에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향적 인접중심성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GO가 다른 단체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주창적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협력활동의 비중은 외향적 연결중심성과 외향적 인접중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향적 연결중심성 및 인접중심성, 그리고 사이중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GO의 협력활동의 비중이 많아지더라도 다른 단체가 협력을 요청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에서 중재력이 높아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협력단체수는 외향적 연결중심성과 사이중심성에 정(+)의 영향력을, 그리고 외향적 인접중심성에는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회에 많은 단체와 협력을 할수록 네트워크 내에서 외향적 활동성과 중재력이 높아지는 반면, 협력대상 단체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비NGO 협력단체의 비중은 연결중심성과 사이중심성에는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외향적 인접중심성에는 정(+)의 영향력을, 그리고 내향적 인접중심성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GO가 아닌 단체와 협력할수록 활동성과 중재력은 낮아지는 반면, 협력대상 단체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GO가 비NGO에 단체에 대해서 더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곱째, 시군단위의 활동비중은 내향적 인접중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4개의 중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GO가 시군에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다른 단체들로부터 높은 신뢰성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이 높을수록 외향적, 내향적 인접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GO의 활동대상이 대중일수록 해당 NGO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연결중심성(외향/내향)과 사이중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이 높을수록 외향적, 내향적 인접중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GO가 비제도적 방식을 통해 활동할수록 신뢰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연결중심성(외향/내향)과 사이중심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NGO를 사례로 하여 NGO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의 중심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3개 신문검색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NGO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의 중심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을 살펴보면, 연평균 1.34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활동은 주로 서비스적 활동, 협력적 활동, 1회에 6개 이상의 단체와 협력, 시군 중심의 활동, 대상 측면에서 대중지향적 활동, 방식 측면에서 비제도적 활동이다. 한편 NGO가 협력하는 단체의 유형은 NGO와 비NGO의 구성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결중심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외향적 연결중심성에는 협력활동의 비중(0.63139), 활동횟수(0.50748), 협력단체수(0.36877), 비NGO 협력단체 비중(-0.3009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향적 연결중심성에는 활동횟수(0.64297)와 비NGO 협력단체 비중(-0.43855)이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접중심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외향적 인접중심성에는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0.65072),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0.21464), 협력활동의 비중(0.14984), 비NGO 협력단체 비중(0.08948), 협력단체수(-0.0154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향적 인접중심성에는 비제도적 방식의 활동비중(0.58101), 대중지향적 대상의 활동비중(0.23958), 시군단위 활동비중(0.15247), 서비스적 활동비중(-0.163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이중심성에는 활동횟수(0.71413)와 협력단체수(0.19119)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7가지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 NGO는 네트워크에서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그리고 사이중심성을 보이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횟수와 협력활동의 비중은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 흥미로운 점은 대중지향적 대상 활동의 비중과 비제도적 방식 활동의 비중은 인접중심성, 즉 네트워크 상에서 신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적 활동만을 수행하게 될 경우, 오히려 NGO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서 NGO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창적 활동을 보다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1회에 너무 많은 단체와 협력을 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NGO 네트워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가와 어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 한계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신문자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NGO의 활동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아울러 NGO 개별단체의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신문자료 이외의 설문조사의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개별 단체의 속성변수를 변수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창현. (2002). 지역복지공급 거버넌스 연구: 네트워크 접근. 「한국행정학보」. 36(2): 313-332.
- 곽기영. (2014). 「쇼셜네트워크분석」. 서울: 청람.
- 김승완. (2011).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9(4): 279-304.
- 김승완. (2012). 조직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환경NGO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 263-290.
- 김영중·이재호. (2002). 환경 NGO와 지방정부간의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6(3): 165-189.
- 김용학. (2007).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도묘연(2016).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 「한국정치연구」. 25(2): 89-117.
- 도묘연·이관률. (2012). 지역 NGO 활동 네트워크의 구조변화: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국행정논집」. 24(4): 803-829.
- 박재창. (2007).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NGO의 정책과정 참여: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221-250.
- 박치성. (2006).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40(1): 353-376.
- 유재원·홍성만. (2005). 정부의 시대에 꽃핀 Multi-level Governance: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0): 171-195.
- 이관률·도묘연. (2012).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135-159.
- 이관률·도묘연. (2015).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한계: 천안·아산지역을 사례로. 「지역발전연구」. 24(2): 79-109.
- 이창길. (2015). 국제개발 NGO와 정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4(4): 587-615.
- 장인봉·고종욱. (2004). 지역 NGO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형성요인에 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87-110.
- 정상호. (2008). 한국 시민단체(NGO)의 재정위기 현황과 해소 방안. 「동서연구」. 20(2): 249-276.
- 정순관·하정봉·길종백. (2008).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115-134.
- 정정화. (2003). 정부와 NGO의 관계모형. 「한국행정논집」. 15(3): 621-642.
- 최병대·김상구. (2004).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217-241.
- 한진이·윤순진. (20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행위자간 정책네트워크: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2): 81-108.
- Berman, S. (1997). Civil Society a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62-574.
- Cuo, C. and Acar, M. (2005). Understanding Collaboration Among Nonporofit Organizations: Combining Resource Dependency, Institutional and Network Perspectiv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4(3): 340-341.
- Lungeau, A. and Contractor, N. S. (2015). The Effects of Diversity and Network Ties on Innovations: The Emergence of a New Scientific Field.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9(5): 548-564.
- Ohanyan, A. (2012). Network Institutionalism and NGO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13: 366-389.
- Pfeffer, J. (1997). New directions for organization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feffer, J. and Salancik, G. R. (1984).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externally controlled

- oreganizations. In D. S. Pugh (ed.) Organizational theory, New York: Penguin, 130-161.
- Saxton, G. D. & Wang, L. (2013). The Social Network Effect: The Determinants of Giving through Social Medi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5): 850-868.
- Scott, J.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SAGE.
- Taniguchi, H. (2013). The Influence of Generalized Trust on Volunteering in Japa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2(1): 127-147.
- Yanacopulos, H. 2005 "The Strategies that bind: NGO coalitions and their influence", *Global Networks*, 5(1): 93-110.

[저자소개]

李 官 律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논문: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특성과 영향 구조에 관한 연구, 2005), 현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등이고, 주요 논문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 네트워크의 형성요인과 한계(2015)”, “청양 구기자산업의 가치사슬분석(2015)”, “영천한약재시장의 형성요인과 유통구조(2014)” 등이 있다(krlee@cni.re.kr).

都 妙 年 영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이익집단의 활동조건과 이익표출활동: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 2007), 현재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민사회, NGO/NPO이고, 주요 논문으로는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2016)”, “NGO의 지방의회 대상 이익표출활동의 현황과 한계 요인(2016)”, “지역 NGO 책무성의 구성요소와 특성 분석: 탐색적 접근(2016)” 등이 있다(politicus21@ynu.ac.kr).

Abstract

Activity Characteristics of NGO and Network Centrality Determination Factors in Chungnam Region

Lee, Kwan-Ryul · Do, Myo-Y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NGOs in Chungnam region an example to investigate the activity characteristics of NGO cooperative network as well as its centrality determination factors. To this end, three kinds of Chungnam regional newspapers were analyzed and database was established to identify NGO activity characteristics and network centrality determination factors.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activity characteristics of NGOs in the Chungnam region, they were found to show 1.34 times of activity on average annually. These activities include mostly service activities, cooperative activities, cooperation with 6 or more groups at once, local activities, inside strategy activities in their target and non-institutional activities in their methodology. Second, degree-centrality determination factors were analyzed. The out-degree centrality was found to affect cooperative activity share (+), activity frequency (+), number of cooperation agencies (+), and share of non-NGO cooperative agencies (-). On the other hand, the in-degree centrality was found to affect the activity frequency (+) and share of non-NGO cooperative agencies (-). Third, closeness-centrality determination factors were analyzed. The out-closeness centrality was affected by the share of non-institutional activity (+), share of inside strategy activity (+), share of cooperative activity (+), share of non-NGO cooperative agencies (+), and number of cooperative agencies (-). The in-closeness centrality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 share of non-institutional activity (+), share of inside strategy activity (+), share of local activity (+), and share of service activity (-). Forth, the betweenness centrality was affected by activity frequency (+) and share of cooperative activity.

Key words : NGO, Network,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